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특기사](#)
 - ◇ (단독)-BOJ, 글로벌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 줄며 완화로 한발 더 나아간 듯
 - ◇ (칼럼)-반복되는 CD 금리 음모론, 실체는 있나
 - ◇ (초점)-3·5년 스왑베이스 역전폭 100bp 돌파..환율·FX 스왑 견조한데 흔들리는 이유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에 한 시민이 항의의 표시를 하고 있다. (로이터/레아 밀즈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13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91.0	0.5%	-6.3%	-4.1%	유로	1.1073	0.4%	-3.5%	-4.4%
100엔 대비	1,090.4	2.2%	-6.8%	-6.9%	엔	108.07	-1.1%	1.4%	2.8%
유로 대비	1,305.2	0.7%	-2.2%	0.2%	위안	7.1159	0.5%	-3.4%	-5.3%
위안 대비	166.41	0.6%	-2.8%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7,219.52	1.6%	16.7%	-5.6%
코스피	2,049.20	2.0%	0.4%	-17.3%	나스닥	8,176.71	0.9%	23.2%	-3.9%
코스닥	630.37	-0.1%	-6.7%	-15.4%	S&P500	3,007.39	1.0%	20.0%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15.59	1.8%	8.1%	-16.2%
국고채 3Y	1.258%	-0.7bp	-55.9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315%	-1.5bp	-56.9bp	-45.9bp	미국채 2Y	1.804%	26.4bp	-69.4bp	60.7bp
국고채 10Y	1.397%	1.6bp	-55.1bp	-52.1bp	미국채 10Y	1.901%	34.1bp	-79.0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4.85	-3.0%	20.8%	-24.8%	한국 5Y	27.42	-1.16	-10.65	-13.74
금(현물)	1,488.45	-1.2%	16.0%	-1.5%	일본 5Y	20.00	1.33	-1.79	-3.34
TR상품지수	2,271.66	1.3%	-4.2%	0.0%	중국 5Y	36.90	-2.21	-29.57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9월 16일(월)>

- 한은, 2019년도 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 파생상품 시장 조사(거래금액 부문)」 결과

<17일(화)>

- 한은, 2분기 기업경영분석(12:00)
- 한은, 8.30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18일(수)>

- 한은, 8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한은, 8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7 ~ 2047(12:00)

<19일(목)>

- 한은, 7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20일(금)>

- 기재부,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 통계청, 제 10 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11:3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9월 16일(월)>

- 중국, 8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8월 산업생산 (11:00)
- 중국, 8월 소매판매 (11:00)
- 미국, 9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1:30)
- 일본, 말레이시아 휴장

<17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8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10:30)
- 중국, 8월 주택가격 (10:30)
- 미국, 8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18일)

<18일(수)>

- 일본, 8월 수출입 (8:50)
- 일본, 8월 무역수지 (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8월 건축허가 (21:30)
- 미국, 8월 주택착공 (21:30)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19일)

<19일(목)>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03:00) 및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03:30)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 유로존, 7월 경상수지 (17:00)
- 미국, 2분기 경상수지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9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8월 기존주택판매 (23:00)
- 미국, 8월 경기선행지수 (23:00)

<20일(금)>

- 일본,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8:30)
- 유로존, 9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잇단 대외 호재를 반영해 급락 출발한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한차례 더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70-1195** 원이다.
- 추석 연휴 기간 역외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1170** 원대로 급락했다.
-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11**월부터 월 **200** 억유로 수준의 자산매입을 재개하기로 한 통화완화정책을 발표한 데다
- 미-중 무역갈등 국면이 양국의 완화적인 제스처에 한풀 꺾이며 협상 낙관론이 재부상했기 때문이다.
- 역외 달러/위안이 급락한 가운데 달러/원은 **1190** 원대 지지력을 뚫고 **1170** 원대로 미끄러진 만큼 그간 공고하게 유지됐던 달러/원 저점 매수 인식에 균열이 생길 여지는 보다 커졌다.
- 이런 가운데 이번주 중에 있을 연준 정책회의는 시장 재료로서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 **18** 일(현지시간)에 발표될 연준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폭넓게 예상되고 있다.
- 이같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안도할 수는 있겠지만 연준 스탠스에 따라 시장은 얼마든지 실망할 수도 있다.
-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합리화할 만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취약하지 않은 데다 미-중 무역긴장도 최근 완화되는 국면인 만큼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을 기대하기 어렵다.
- 그렇다 보니 이번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연준내 이견이 드러나면서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 연준의 완화적인 사이클이 확인될 경우 달러/원 환율은 또 한차례 하향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글로벌 달러 강세 여건 속 달러/원 환율은 다시 하방경직적인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 한꺼번에 불어닥친 대외 훈풍 속에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압력은 분명 한풀 꺾인 듯 하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들의 부양책 확대 기초가 시장심리를 떠받치는 국면이 재현되고 있다.

- 달러/원 환율의 추세 전환을 저울질할 시점은 분명 이른 감이 있지만, 달러/원의 하방경직성보다 상방경직성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도 커졌다.
- 이런 가운데 시장참가자들의 연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달러/원 환율의 단기 방향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과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금리가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조정 압력이 강해지겠지만, 저가매수세 유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유럽중앙은행(ECB)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ECB는 지난 **12** 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를 현재 **-0.4%**에서 **-0.5%**로 **0.1%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월 **200** 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 ECB의 양적완화 재개 발표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대미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대두와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2500** 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30%**로 올리는 조치를 협상 기간 중에 연기하기로 한 것도 무역합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 시장은 이번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파장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예상이다.
-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까지 부상한 상황에서 연준이 시장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선물을 꺼내놓기는 더 어려워졌다.
- 전반적인 분위기는 채권 매수에 더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채권시장이 글로벌 채권시장보다 먼저 매를 맞았다는 인식, 국내 펀더멘털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감안할 때 금리가 오를 때마다 매수를 고민하는 하우스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단독)-BOJ, 글로벌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 줄며 완화로 한발 더 나아간 듯 - 소식통들

도쿄 (로이터)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은행(BOJ) 정책위원들이 오는 18~19일 정책회의에서 부양책을 확대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에 좀더 열린 입장이라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밝혔다.

글로벌 수요 둔화 신호들이 증가하면서 BOJ 정책위원들은 글로벌 성장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다소 잃었다. 하지만 이사회 내에서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의견은 아직 막상막하일 것이다.

정책위원들은 12일 유럽중앙은행(ECB) 회의와 17~18일 연준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을 검토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옵션도 별로 없다.

한 소식통은 "글로벌 성장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면서 일본의 생산 갭에 영향을 주고 내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일본 경제 리스크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BOJ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두 명의 소식통들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소식통들은 만약 BOJ가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옵션이 될 수 있다면서 그와 함께 금융기관들에 대한 타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도 수반될 것이라고 전했다.

BOJ는 마이너스 금리 심화, 10년물 수익률 목표치 하향 조정, 리스크 자산 매입 확대, 통화공급 속도 가속화 등이 완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칼럼)-반복되는 CD 금리 음모론, 실체는 있나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또 음모론이다.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이야기다. 최근 한 두달 새 벌써 두 번째다.

처음엔 CD 금리가 내려갈 때 터지더니 이번엔 CD 금리가 올라가니 나왔다.

지난 7월 말 KEB하나은행이 3개월 CD 금리를 기준금리(1.50%)보다 낮은 수준에 발행한 이후에 의혹을 제기하는 딜러들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금 사정이 빠듯한 7월 말일에 3개월 CD가 발행됐는데 받아 간 곳들이 모두 증권사들이었다는 게 이슈가 됐다.

스왑 포지션과 연관됐거나 CD 금리를 조달 기준으로 삼는 증권사들이 CD 금리를 낮춰 자기들 조달금리까지 낮추려 하지 않았겠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지난주에는 CD 고시 금리가 사흘 연속 상승한 게 큰 이슈가 됐다. 3개월 CD 금리는 4일에 1bp 상승한 데 이어 5일에 3bp 올랐고, 6일에 다시 1bp 올랐다. 5일 시장에서 잔존 만기가 83일인 국민은행 발행 CD가 1.60%, 1.61%에 거래된 게 결정타였다.

시장에선 증권사 몇 군데 팀이 이자율스왑(IRS) 단기 테너를 공격적으로 폐이하고, 이 포지션의 성과를 위해 CD 경과물도 거래시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최근 CD 금리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린다. 이전에는 1년 동안 1bp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3개월 CD 금리가 최근 들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다 보니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딜러들이 늘고 있다.

CD 금리 음모론은 얼마나 실체 있는 이야기일까?

▲발행물 시장·예담 ABCP 보면 과하지 않은 CD 고시금리 변화

CD 금리 음모론이 유효하려면 3개월 CD 고시금리의 변동을 유발한 거래가 통상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7월 말에는 시장 금리가 워낙 빠르게 추락하다 보니 그나마 상대 금리가 높아 보였던 CD로 자금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CD 발행에 몰린 자금만 수천억원이었던 데다 결과적으로 8월 한 달

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당시 거래가 과하지 않았음이 결과로 인정됐다.

지난주 CD 금리 상승을 촉발한 경과물 거래는 어떨까? 잔존 만기 83 일짜리 CD 가 1.60%에 거래된 건 과했던 것일까?

발행물 시장을 보자.

당시 일부 시중은행이 6 개월물 1.56~1.57%, 1 년물 1.58~1.59%에 시장 태핑을 했지만 수요를 찾지 못했다. 단기 자금시장이 뻣뻣하다는 인식 속에 CD 발행이 원활치 않던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희석되면서 통안채 등 단기 물 금리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단기자금시장 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예금담보 ABCP 금리의 움직임이다. 8 월 초까지 1.40%대 초반에 거래됐던 예담 ABCP 금리가 불과 20 여 일 만에 20bp 가까이 올라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은행 자금 담당자들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연말 준비에 나섰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바로 금융당국이 내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다. 올해까지는 가계 대출이든, 기업 대출이든 관계없이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대출 취급이 제한되지만,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승하는 반면 기업 대출 가중치는 15% 낮아진다.

현재 예대율이 100%에 육박하는 은행의 경우 내년에 새로운 예대율이 적용됐을 때 가계대출 비중에 따라 100%를 넘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은행들이 예대율을 낮추는 방법은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하거나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금을 늘리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연말로 갈수록, 내년 새 예대율 적용 시점이 다가올수록 은행들의 '비율 맞추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빨리 예금을 늘리는 게 비용도 절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KB 국민은행이 먼저 치고 나가자 다른 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쫓아갔고 이게 예담 ABCP 금리 급등을 초래한 것이다.

현재 1 년 만기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거래된 예담 ABCP 금리가 1.60%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62~1.63% 정도로 봐야 한다. 경과물 CD 금리가 1.60%에 거래됐다고 해서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CD 시장성·투명성 회복 진행 중..과도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그렇다 해도 누가 CD 거래를 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특정 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CD 를 몇백 억원 거래시켜 IRS 금리를 좌우한다면 문제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거래를 했든 그 금리가 적정 수준과 크게 괴리를 보이지 않는다면 무작정 의혹을 제기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팔아보려고 하는 곳과 사보려고 하는 곳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격이 형성된다. 이 가격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금리 수준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호가를 대볼 일이다.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매도가,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매수가 붙을 것이다. 그렇게 유동성이 생기고 가격이 만들어진다. 다른 채권 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CD 니까 금리가 움직여선 안 된다는 논리도 이상하다.

돌이켜 보면 CD 시장이 고사한 데에도 이 같은 의심병이 크게 작용했다. 워낙 많은 돈이 CD 금리 1bp 에 좌우되다 보니 CD 가 한 번 발행될 때마다 시장이 시끄러워졌고, 그때마다 시중은행들은 더 몸조심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CD 금리 담합 조사 이후 은행의 CD 발행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고 발행을 해도 전일 민간평가사 금리 수준에서 기계적으로 발행 금리를 결정했다. 그 결과 CD 고시금리는 기준금리 조정이 없으면 1 년 동안 1bp 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됐다.

CD 고시 증권사들도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등쌀에 CD 발행금리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 채권 수익률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시 금리를 보고하라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CD 금리를 한 번 조정할 때마다 폭발하는 항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던 민간평가사들도 발행 금리만 반영하는 시장 분위기에 영합할 수밖에 없던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예대울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을 예수금의 1%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 여파다. 실제로 감독규정 개정 이후 CD 발행 잔액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6조 7천억원이었던 CD 발행 잔액은 올해 3월 말 11조 3천억원 수준까지 늘었고, 6월 말에는 14조 3천억원까지 확대됐다.

시중은행들은 이제 예전처럼 눈치를 보면서 CD를 발행하지 않는다. 수요만 있으면 CD를 발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CD 발행 잔액이 늘어나니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량도 늘어난다. 물론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통량이 미미한데 CD 고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커 보이니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CD 고시금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다. CD 고시 담당 증권사들의 고시금리 입력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커 신뢰 제고에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준법 감시프로그램을 통해 CD 고시금리가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 문제는 이제 법적 강제력에 의해 일정 부분 해결될 여지가 생겼다. CD 고시금리를 산출하거나 제출하는 기관이 확대된 형태의 내부 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 금융거래지표관리법의 국회 통과가 목전까지 왔기 때문이다.

CD의 시장성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 금융위가 은행 예대울을 산정할 때 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2%까지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발행량과 유통량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CD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 될수록 이해관계자들의 불멘소리도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의혹만 키우는 문제 제기라면 정치판과 다를 게 없다. CD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지만 금리만 좀 크게 움직였다 하면 제기되는 음모론은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초점)-3·5년 스왑베이스스 역전폭 100bp 돌파..환율·FX 스왑 건조한데 흔들리는 이유는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최근 달러/원 환율이 1190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FX 스왑 포인트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3년, 5년 스왑 베이스스 역전폭이 100bp를 넘어서는 등 확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외화채 발행 연기 등 여파로 수급이 고인 데다, 보험사들의 자산 스왑이 장기 테너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크로스 시장의 쓸림을 부추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분기말을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FX 스왑 시장이 현재와 같은 견고함을 유지하느냐가 향후 스왑 베이스스 변동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5년 스왑 베이스스 역전폭, FX 스왑 안정에도 100bp 넘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지난 9월 3년 스왑 베이스스 역전폭은 102.5bp, 5년 역전폭은 104.3bp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이후 다시 한번 스왑 베이스스 역전폭이 100bp를 넘어선 것이다.



(5년 스왑베이스스 역전폭, 출처: 레피니티브)

통화스왑(CRS)과 이자율스왑(IRS)의 금리차, 즉 외화자금 조달비용과 원화자금 조달비용의 차이를 의

미하는 스왑 베이스의 역전폭 확대는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대내외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때 달러/원 환율 상승, FX 스왑 포인트 하락, 스왑 베이스 역전폭 확대 등이 함께 나타나곤 했다.

지난해의 경우엔 FX 스왑 포인트 급락이 크로스 시장까지 흔들며 스왑 베이스 역전폭을 키우는 패턴이 자주 나타났다. 원화를 대가로 달러를 조달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관들의 자산스왑 물량이 FX 스왑 시장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분기말에 은행들이 외화 대차대조표(B/S) 관리를 위해 달러 자금 공급을 줄일 때마다 FX 스왑 시장은 큰 충격을 치렀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1250 전까지 찍었던 FX 스왑 포인트는 올해 들어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안정세 보이는 FX 스왑포인트)

보험사가 매입한 외화채권과 환 헤지 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FX 스왑 시장의 구조적 수급 왜곡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카타르은행(QNB) 자산담보기업어음(ABCP)을 편입했던 펀드의 대량 환매 사태 역시 FX 스왑을 통한 헤지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다.

A 시중은행 자금운용부장은 "작년 3월과 12월에 FX 스왑 시장이 정말 어려웠고 3월에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여러 차례 대책회의도 열렸던 기억이 난다"며 "올해 FX 스왑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은 카타르은행 ABCP 사태로 만기가 짧은 비슷한 해외투자

상품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당국의 환 헤지 규제 때문인 듯하다"고 말했다.

▲부채스왑 잇따른 무산·물지 마 자산스왑 지속..FX 스왑 관건

FX 스왑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스왑 베이스가 벌어지는 원인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들은 보험사들의 지속적인 자산스왑을 들고 있다. 최근 나오는 자산스왑의 경우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대체투자가 대부분인데 보험사들은 헤지 만기로 3년 이상 테너를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현대캐피탈의 외화채권 발행 취소로 수급이 꼬인 것도 분위기 반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현대캐피탈에 이어 외화채권 발행에 나선 SK하이닉스가 부채스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 역시 시장 심리에 큰 타격을 미쳤다.

B 시중은행의 한 이자율딜러는 "하이닉스가 당연히 부채스왑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며 "추석을 앞두고 자산스왑 나오는 게 있었는데 시장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가장 흔들렸을 때보다 베이스가 더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크로스나 IRS 둘 중 하나는 뭐가 틀렸든 틀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C 시중은행의 이자율딜러는 "작년에는 손절이 손절을 부르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이 금리 레벨에도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그냥 놀리는 장세"라며 "이 금리 레벨에도 고객들이 다 감수하면서 하겠다고 하니 은행들은 수수료를 어느 정도 떼고 커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이한 건 최근 국내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오피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도 있고 하니 추석 연휴 전에 미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분기말을 앞두고 FX 스왑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FX 스왑 시장이 흔들릴 경우 스왑 베이스 변동폭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D 시중은행의 자금운용부장은 "최근 상황이 이론과 맞지 않아 주니어 딜러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며 "그냥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FX 스왑이 흔들리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